

복되신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서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2001년 1월

Medjugorje

제 2 호

February, 2001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기도가 너희 안에서 기쁨이 될 때까지 더욱 큰 열정으로 기도와 단식을 새롭게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는 이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식을 하는 이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이 전쟁, 즉 너희들의 믿지 않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전쟁들도 중단될 수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평화와 희망은 하느님 안에 있음을 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노라.

그것이 너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 가야 하며 그분을 너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1999년 9월 29일 / 슬라브코 신부님의 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평화의 임금님이신 당신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여왕이신 성모님과 함께 청하오니 당신의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어 당신

이 우리에게 근접해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당신의 평화를 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당신과 당신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좋은 관계가 가능하게 하여 주소서. 청하오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나쁜 습관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현존에서 우리를 단히게 하는 모든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것과 당신을 우리 삶의 우선 자리에 모시는 것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소서. 오, 아버지 청하오니 모든 부모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이 참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당신의 말씀에서 삶을 위한 지혜와 사랑과 힘을 얻도록 당신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여 주소서. -이하의 내용은 본지 5면에서 계속됩니다.-

성체성사와 성모님



임언기 안드레아
화이트 플레인 성당 주임신부

저는 1996년 12월에 메주고리예를 다녀왔습니다. 메주고리예 순례 중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순례 전에 메주고리예에 관한 서적을 읽고 메주고리예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실천하면서 메주고리예에 다녀오고 싶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교회의 공식적인 인준은 받지 않았지만, 기도(특히 로사리오), 성체성사, 성서, 단식, 고해성사의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물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영성적으로 이완되어가는 유럽 교회 혹은 세계 교회를 성화 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성모님을 통한 어떤 섭리 계획이 들어 있지 않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메시지 자체가 가톨릭 신앙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요 핵심인데, 얼마나 우리들이 그 본질에서 멀어져, 진실되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과 성화애로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고 반성했습니다.

몇 주 전, 평화의 모후센터 U.S.A.를 운영하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한 남 그레고리오, 미카엘라씨 부부를 만나 메시지 중 하나인 성체성사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고 무언가 좀 더 메주고리예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건전한 성모신심 정착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 자신을 바치신 십자가상 제사를 피흘림 없이 재현하여, 신품권을 가진 사제의 손에 의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천주 성부님께 바치는 가장 숭고한 제사요 최고의 경신례인 미사에 대해, 미사의 중심인 성체성사와 영성체에 대해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주목하면서, 평소 성체성사와 성모님께 대해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미사와 성체성사에 관한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봅니다.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너희들은 미사의 은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너희는 완전하고 겸손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 스스로를 준비해야만 한다.” (1983년)

“만일 너희가 받는 것이 (성체를 영하는 것)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영성체를 위해 매일 한 시간이라도 너희 스스로를 준비할 것이다.” (1985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저녁도 또한 특별히 너희들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제대위에 있는 거룩하신 성체를 끊임없이 찬양하여라. 나는 항상 신자들이 조배하는 곳에 함께 한다. 그 순간이 바로 특별한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다.” (1984년 3월 15일)

저는 성모님께서 최초의 성체 조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순간, 육화(肉化 ; Incarnation)가 이루어지고, 역사 안에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모님의 살과 피(肉)를 취하시고 들어 오시게 됩니다. 이 수태의 순간부터 성모님께서서는 과연 누구와 대화하며, 누구와 기도하고, 누구를 조배 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태중에 계신 아드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천주 성자님을 흠숭하고 찬양하며 조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생의 신비가 너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라 성모님은 구세사 안에서 주님의 선구자로 소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의 출산을 앞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잘 것 없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루카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수태한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을 태중에 뱃 엘리사벳, 두 임신부의 만남속에서 영이 영을 알아보듯 성령께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아보게 하고, 성모님 태중의 아드님을 복되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성모님 태중의 아드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엘리사벳의 성체조배라 볼 수 있고, 구원자 예수님을 모신 성모님의 방문으로 즉 성모님 태중의 예수님 때문에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 ‘세례자 요한’도 어머니의 배안에서 기뻐 뛰놀음으로 인해 신학적으로는 원죄의 사함을 받는 특혜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성모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성체)를 모셔다 준, 구원을 중개해 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고 조배할 때 성체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성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성체 안의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듯이 성모님께서는 수태 후 9-10개월 뿐만아니라 출산 후 갓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안치 하셨을 때에도 그 앞에 요셉 양부와 함께 무릎을 꿇고 믿음과 사랑으로 경배한 최초의 성체 조배자 였습니다. 구유 안의 갓난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 안의 천주성자 위격을 보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조배한 것입니다.

12살때 순례 중에 잃어버린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셨을 때에도, 인류의 첫 사람이 나무로서 지은 죄를 나무로서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수업을 배우시며 십자가 나무를 미리 목상하시는 청년 시기를 나자렛에서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적어도 예수님의 30년 간의 사생활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간성 이면의 신성을, 천주 성자 위격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철저히 그리스도(성체)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혹시 주님을 통해 이성적으로 못알아들을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길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루카 2장, 51절- 특히, 인류 구원사업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도,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 대속을 하셔야 성부 하느님 께로부터용서 받을 수 있는 죄인지를 알아보시고, 당신 발 앞에 넘어지고 매맞고 침뱄음 당하고 못 박히시는 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 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가슴이 메어지고 예수님 대신 죽고 싶은 마음으로 통고하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성모님을 사도들의 어머니로 주시며 -요한 19장 26, 27절-,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설정하신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 우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사도들과 함께성모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성모님께서는 그 후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며 사도들에게 당신이 체험하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영적 가르침을 주시고, 사도들이 미사를 거행하며 성체성사를 이루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성체 안의 주님을 조배하시고, 영성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승에 의하면 최소한 15-20년을 에페소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하신 성모님은 사도 요한의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체와 관련된 성모님의 삶을 목상해 보았는데 결국 메주고리에에서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성체성사에 관한 메시지도 당신처럼 철두철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 구원과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무염시대 특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깨끗하고 거룩한 장막 안에 예수님을 수태하실 수 있으시듯이,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 단식과 고백성사로 잘 준비된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미 구원 받았다는 표지가 되므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린토 전서 11장 27절의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던 안하던 성체성사를 영하면,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 (성화은총: 인간이 하느님의 신적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자연적 은혜)이 영혼 안에 성장하여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거룩해지고 - 레위 19장2절, 20장26절, 베드로전서 1장15절-16절-, 주님과 닮고 일치하여 점점 하느님 化, 그리스도 化 됨으로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자주 성체를 영하며 성체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 요한 6장57절, 갈라 2장20절 참조 -

미국에서는 성체 조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성체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1)흠숭, 찬미, 감사 (2)속죄, 보속 (3)청원, (4)구원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성체조배라 합니다. 사실 성체조배시 사랑하는 연인의 대화처럼 성체 안의 주님과 무슨 말씀이라도 간단없이 다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참으로 성체 조배와 기도를 잘 하려면, 우선 성서(말씀)를 통해 계시된 진리와 올바른 신관(그리스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성서)을 멀리하고 망각하고 아예 불 생각조차 안하고 내 팽개쳐 버렸으면, 성서를 좀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나 온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며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성체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오래동안 이곳 메주고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87년 1월 1일)

당신 앞에

고요한 아침
당신 앞에 앞드리면
당신은 깊은 침묵속에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 잠기게 하십니다

한적한 오후
그리움에 당신 앞에 앞드리면
당신은 빛으로 저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속에 온전히 녹아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때때로 삶속에서 부딪치는 아픔과
상한 마음 안고
당신 앞에 앞드리면
당신은 말없이 나를 위로하시며
당신 품에 안아 잠들게 하십니다

바람불고 비 오는 날
부르심에 이끌려 당신 앞에 앞드리면
당신은 제게 말씀 하십니다
이런 날 나는 더없이 외롭고 쓸쓸하다
나를 위로해 다오
나를 위로해 다오

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
제 영혼이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 세실리아 <퀸즈성당 성령기도회 회장>

-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 스스로를 당신에게서 멀리 있게 하고 멀리 계시는 하느님이신 당신에 대하여 불평하는 모든 사람과 고통중에 홀로 남겨져서 괴로움을 느끼며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청하오니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 당신 사랑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사랑의 부족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암흑 가운데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에 대한 당신 사랑의 빛 안에서 그들이 당신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그릇된 길을 따라 평화를 찾고 있으며,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청하오니 그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지금 죽음 안에서 마지막 길에 있으며 더 이상 돌아설 곳을 알지 못하는 모두를 다시 불러주소서. 당신의 참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소서. 앓고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쟁과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청하오니 당신의 이름 안에서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소서. 우리를 축복해주시며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영제 지메님들의 신앙 체험담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성체 신심의 성장 과정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체험적으로 성체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체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되고, 성체 안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자랍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하고 성체조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를 행하게 됩니다. 지성이 마음을 움직여 실천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은 다시 실천을 강화하는 과정이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성체 신심은 점점 깊어지고, 성체 안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미사 성체는 하루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성체 신심이 성장할 수록 자신이 예수님의 몸임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신은 예수님의 몸이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는 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1)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내 몸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악습을 멀리하고, 수덕생활에 정진하게 됩니다.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임을 깊이 인식할수록, 예수님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임을 깨달을수록,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나는 내 힘

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요한 6, 56-57-.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고자 힘쓰게 되고 주님의 영인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3)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성부께 대한 사랑을 증가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아버지께 가지셨던 그 사랑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4)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세상 삶 안에서도 자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 갈 때 두려움 없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신심이 성장할수록 나의 이웃이 나와 한몸임을 깨닫습니다.

(1)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몸인 것입니다.” -1고린 10,17-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체를 영한 이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같은 성체를 영한 나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와 이웃은 한몸이 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혈육인 것입니다.

(2) 우리가 이웃 안에도 예수님이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감실이며 예수님의 몸인 이웃에게 해 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우리가 이웃과 한몸임을 느끼게 되면, 이제 이웃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다른 이웃이 잘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이웃이 잘 안되면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사람이 나와 한몸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 잘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4) 이웃이 나와 한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르 12,31- 는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실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 재능, 재물을 나와 한몸을 이루고 있는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체신심을 생활화 하고 미사를 생활화 하는것은 이런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 놓으셨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체께 대한 신심의 깊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체신심이 깊이 성장하면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사는 삶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 성체신심이 성장할수록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회되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쉽게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되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요한 13,34 - 하신 예수님의 세계명을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 주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2)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재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사도의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이 되는 삶은,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될 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모두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나의 것은 그분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민의 구원을 목말라하

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3) 성체신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사는 삶은 “이제 내가 사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때 나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재현하시는 주님을 자주 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하나의 당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성체를 영하는 이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는 성인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체 신심의 생활화

성체 조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째 부분 :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영적독서를 합니다. 이때 영적독서는 가능한 한 복음을 읽습니다.

둘째 부분 :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반성하기 위하여 양심성찰을 합니다. 양심성찰을 잘 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생활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묵상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성찰을 통해 우리는 신자로서 지킬 의무와 십계명을 잘 지켰는



지,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했는지 자신을 살핍니다. 양심성찰은 영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항구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일같이 양심성찰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많은 성화 방법도 헛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부분 :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은혜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기

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자주 방문하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조금만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끔 방문하라! 원수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능한 한 가끔 방문하라! 나쁜 원수들이 너에게서 도망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주 예수께로 피해 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악덕에 정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찾는 일을 그만 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 안에 계신 구세주를 방문하는 것은 악마를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자주 성체의 구세주를 방문하면 악마는 여러분에게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성 요한 보스코)

정기적으로 성시간을 가지십시오.

(1) 성시간은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써, 공적으로 할 때에는 한 시간 동안 성체를 현시하고,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성가를 바칩니다. 그리고 성체 강복으로 끝냅니다. 이는 성체신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성시간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매월 첫 목요일이나 첫 금요일 저녁에 성시간을 갖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성시간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2년 반 동안 성녀 마르가리타에게 70회나 발현하여 당신 성심에 관한 것을 계시하시고 “내 성심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신뢰와 사랑, 봉헌과 흠숭, 보속과 희생을 받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시작된 성시간은 냉담과 불신, 합리주의와 유물론 및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강한 무기와 보루가 되었습니다.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주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1) 신령성체는 실제적인 영성체가 아니라,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 영성체 하는것을 말합니다.

(2) 신령성체는 하루의 모든 행위를 신앙과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기에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령성체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성체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3) 신령성체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열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즉 우리의 의향에 따라 성사적 영성체화 유사한 결실을 맺습니다. 따라서 성체신심을 키우고 생활화 하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실로 여기 성체 한에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당신을 사랑하오며, 당신의 성체 영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당신의 성체를 영할 수 없으니, 내 영혼이 영적으로 만이라도 배부르게 하소서. 당신의 성체를 모실 때 처럼 나를 당신과 일치하게 하시어,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 알폰소 리구오리)

성모님은 우리를 성체 안의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1)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신앙의 신비”라는 성체에 대한 회칙에서 마리아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사이의 끊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인들은 예외없이 모두 성체와 성모께 특별한 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체께 대한 탁월한 신심과 성체께 대한 흠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도회를 창설한 줄리안 에이마르는 회원들에게, 마리아를 “성체의 성모”하는 이름으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2) 우리가 성모 호칭기도에서 성모님을 “계약의 퀘”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 여겨졌던 계약의 퀘 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성자를 9달 동안 태중에 모신 새로운 계약의 퀘 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주님을 모신 첫번째 감실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3) 예수님께 티없는 거처를 드렸던 마리아는 우리가 성체께 대한 사랑과 신심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모님과 성체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주님이 성체한에 현존하신다는 신앙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티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성모신심을 갖고 성모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체 안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사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 동정 마리아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의 예수님께 조배하시는 성모님,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요, 온 교회의 기쁨이며, 이 세상의 희망이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성체께 대한 지극한 신심을 불붙이시어, 그들 모두가 날마다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500일 대사)

성체안의 예수님께 조배하시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00일 대사)

영성체 축 기도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위하여는, 저하고 같이 계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너무 약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는 약한 자이오니 제게 같이 계시어, 저를 용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은 제 생명이시니 주님 없이는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암흑속에 빠지고 마나이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늘 예수님의 뜻을 실천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늘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길동무가 되고자 하옵니다. 예수님! 제게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늘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제 영혼이 주님께서 위로 받으실 곳이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드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세월은 더딘것 같으나, 해는 벌써 저물어 갑니다. 즉 저희 삶은 빨리 지나가고, 죽음과 심판과 영원은 저희에게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도중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용기를 내는데는 주님이 제게 계신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멈춰 멈춰 하는 동안에 죽음이 닥쳐옵니다. 저는 어둠과 유희와 무미건조함(기도해도 아무 기쁨과 영혼의 평화로움도 맛보지 못함)과, 작고 큰 십자가들, 영혼, 육신의 저 많은 고통, 번민들이 닥쳐와, 이 귀양살이 밤에 주님, 제게 주님이 꼭 필요하오니 늘 제게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이 삶의 어두운 밤과 저 많은 위험속에 꼭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 본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저도 성체를 영한 지금, 주님은 제게 어둠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헤쳐 나가는 용기를 주시어 제가 늘 곳곳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제 마음속에 유일한 기쁨과 평화가 깃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생명이 끝나는 날(죽음)에 꼭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길이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제게 과분한 영혼의 위로만을 주님께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늘 저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은총만을 주옵소서. 하고 애원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늘 찾는 것은 주님 당신뿐이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주님의 마음과 주의 성심안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뿐이지, 다른 상급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것 뿐입니다. 실천하는 사랑, 굳센 사랑만을 제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로지 전심 전력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여,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라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50년 동안 오상을 받으신 비오 신부>

수리를 베푸시는 성모님

이운우 유스티나
베이스айд 성당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메주고리에 창간호를 받아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마치 성모님이 저를 끌어당겨 주시는 느낌! 그 자체로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근 20년 동안이나 메주고리에서 6명의 발현자들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신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 늘 생각해 봤지만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하고 무능함을 용서해달라고 떳떳치 못한 기도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좋은 소식을, 새해 선물치고는 너무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남홍익 그레고리오 부부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때 처럼 남 그레고리오 부부도 성모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 전파의 부르심에 “예” 하며 순종하는마음에 이것 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응답하신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부디 메주고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실으시어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하시는 메시지가 밀알로 심어져 기쁘고 행복하신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유난히 뉴욕과 근접 지역에서는 메시지를 생활속에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 그레고리오 부부를 도구로 선택하셨으니 뉴욕과 근교 지역에 성령의 불을 지피시어 많은 신부님과 수도자님들 그리고 교우분들이 보다 쉽게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오실 수 있는 여건과 좋은 길잡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항상 오른 손을 당신의 가슴에 대시고 왼 손은 길게 펴시어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 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메주고리를 가보십시오. 거

룩한 성모님께서 왜? 무엇때문에, 또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지는 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번 가면 또 가고싶은 곳이 바로 메주고리에입니다. 성모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어 20년 동안이나 발현하고 계신 곳이니 누구든지 성모님의 초대에 응하시어 많은 축복도 받으시고 좋은 피정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를 통하여 성모님의 소식지와 함께 메시지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며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이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 다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보속하며 기도합니다. 다시한번 평화의 모후센터 U.S.A.의 남 그레고리오씨 부부에게 감사와 격려 그리고 축하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남 미카엘라
그레이트넥 본당

예수님 당신은 저를 위하여 이세상에 오셨으며 저의 죄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 영혼의 양식으로까지 당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언제라도 만나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니 이세상의 그 누가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고 보살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성체신심 피정을 가게 된것은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이시고 은총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자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

기를 원하셨고, 우리들과의 만남만이 예수님의 기쁨이시기에 오늘도 감실 속에서 성체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신부님의 말씀은 깊은 감동과 감사로 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토록 큰 희생을 받아 들이신 것은 오로지 우리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 뿐이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함께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고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무관심으로 외롭게 해드렸다는 죄송함 때문에 감실 앞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실 앞에 앉으면 무덤덤한 마음으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주모경만 하고 일어나는 것이 전부였으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저의 믿음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가까운 성당들의 미사 시간을 알아보고 또 언제라도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과 하루의 일과 중 무엇이 힘들었고 기뻐했는지 이야기 할 수 있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또다른 풍요로움의 여유로 제 삶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체신심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각 주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천국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들처럼 한 점의 티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을 준비해 주신 오하이오 신시내티 성령봉사회의 이천균 회장님과 이범주 신부님과 황석모 신부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시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또 체험할 수 있었으며 언젠가는 나도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도구로 써 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구로 쓰시어 우리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감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그곳의 모든 분들이 함께 다짐했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 성모님 사랑합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제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들이 받는 교육과 준비를 새롭게 하시어 그들이 받은 신품성사가 과연 놀라운 계시였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새로운 정력으로 주님의 성체와 신비체에 대한 그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언제나 다시 젊어지고 기뻐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인 사제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일편단심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랑의 풍요한 환희와 깊이를 맛들이리이다. 악아라면 규정하고 쳐부수고 피할 줄 밖에 모르는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감수성이 강하며 겁도 낼 줄 아는 어린이의 마음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온 교회와 전 세계를 포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온갖 유혹과 시련, 온갖 실증과 띠로, 온갖 환멸과 모욕을 견디어 내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장과 고통을 같이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교황 바르오 6세께서 1970년 5월 17일에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여 278명의 사제품을 집전하시고 강론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손전히 봉헌된 삶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는 사흘동안 애타게 찾아다니시며 마음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애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그동안 너를 찾아 얼마나 돌아 다녔는지를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어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성서의 대화에서는 이것이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드린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 되었으며 성모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이후로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믿으시며 받아들이셨기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임을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또 다른 대화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는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려드리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에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길 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께 여인이라는 호칭을 쓰셨을까요? 그 대답은 묵시록 12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묵시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한 여인을 등장시키며 그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한 아기가 그 여인을 통하여 탄생하시며 이 여인은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음을 보여 줍니다. -묵시 12,17-18 참조 -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성모님께서서는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모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아리의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으며 손님들은 더욱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주인을 칭찬하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요한복음 2,9-11-.

바로 성모님은 우리에게도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되신 성모님은 당신의 중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예수님으로 부터 받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그분과 일치하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새로이 시작되는 3000년기를 사는 우리가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살피 주시는 복되신 성모님께 온전해 봉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끝까지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신비, 믿음의 잔치에 초대 받았음을 찬미 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 자신들과 공동체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시고 일치 시키신 때가 십자가 상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철저한 완성을 알게된 여인의 소명을 받아들이셨으며 -요한 19,25-27 참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왜 성모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발현을 하시며 우리들이 회개와 희생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토록 끊임없이 호소하시며 누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의 새로운 소식들

지난 20여 년간 메주고리예의 순례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관장하셨고 많은 순례자들에게 친숙하셨던 슬라브코 바바릭 신부님이 돌아가신지 3달 남짓되는 요즘의 메주고리예는 평온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맡아서 하시던 업무는 이제 새로 오신 밀렌코 스토이에 신부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며, 특히 성모님의 월간 메시지의 해설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여러 건의 기적적 치유의 사례들이 교황 성하게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하게서는 2000년 5월에 크로아티아의 스플릿 교구장이신 Francic 주교님께 메주고리예의 일들을 지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한동안 피타 루브릭 신부님이 메주고리예에 오실 것이라는 소문들은 사실이 아님이 그분의 측근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피타 신부님께서 현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며, 그곳의 크로아티아인들의 이민 사목을 맡고 계십니다. 피타 신부님은 선견자 미리아나 솔도의 영적 지도신부이며 성모님께서 선견자들에게 주신 비밀들 중 기적의 표징이 있기 전 처음의 세 가지 비밀을 세상에 발표하시게 될 사명을 받고 계십니다.

금년에 37세인 선견자 비스카는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얼굴은 무척 야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오직 크랙커와 차(Tea)로만 단식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9년에 식도 또는 목에 어떤

커져가는 (혹같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태리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암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에도 이태리에 가서 그곳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으나 어떤 증상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비스카가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희생과 보속을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모두 이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기도와 단식을 하여야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로서 특기할만한 일은 비스카의 형부되는 40대의 믿음의 무척 좋았었고 성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한 신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는 날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과 친구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주고는 가장 좋은 옷으로 정장을 한 후 작년 7월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심장마비로 인한 예정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같은 날 선견자 이반 드라기체빅은 성모님의 발현 중에 복되신 동정녀께서 비스카의 형부인 그 신자를 자비와 사랑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그가 성모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천국에 가시어 지금 우리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분들과 같이 성모님과 함께 천상 영복을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단식하며 성모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대로 회개하며 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희생과 보속을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며...**

평화의 모후센터 U.S.A.에서 발행하는 메주고리예 소식지는 여러 교우님들의 도우심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늘 바쁘신 중에도 소식지의 발행과 지도를 맡아주신 그레이트넥 본당의 김한기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김철석 교수님 부부와 조지아의 이옥원 자매님, 뉴욕 퀸즈성령기도회의 최세실리아 회장님과, 모든 기도회원님들, 필라델피아의 평화의 모후 기도회의 함형권 회장님과 기도회원님들, 노세실리아 자매님과 노안나 자매님, 그 외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것을 믿습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 참가 신청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요한 6:57-58 -

일시 : 2001년 5월 9일(수요일)-5월 13일(일요일) - 4박 5일간

장소 : Sacred Heart Monastery : Cullman, Alabama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임언기 신부, 최광조 신부, 봉사자들

세미나 내용 : 성체와 성혈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대해 더 깊은 인식을 하게되어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쇄신하는 은총을 얻기 위함.

참가인원 : 50 명

참 가 비 : 250 달러

준 비 물 : 신청서를 받은 후 알려드립니다.

마감일자 : 2001년 4월 15일

신청서 보낼곳 : 최 프란치스코 신부 (Rev. Francisco Choi)

460 Park Terrace, Birmingham, AL. 35226 (Tel.205-823-6611)

신청방법 : 1) 신청서와 신청금 100달러를 동봉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Check는 “St. Luke Korean Catholic Church” 로 써 주십시오.)

2) 4월 22일 (일요일) 이후 취소 하시는 경우 신청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 락 처 : 윤희정 안젤라 (Tel. 256-880-6806)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 가겠느냐?

우리 모두는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을 사랑 하오며 당신만이 진리이심을 아옵니다.”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과 일치 이루고 나와 내 영혼과의 일치, 그리고 이웃과의 일치를 이루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와 피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본당과 단체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일정을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게재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의 메주고리에 순례일정

성모님께서서는 20년 동안이나 발현하시어 이제는 죄에 대한 분별까지도 희박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흠에서 태어나 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하느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와 보속의 사순절 피정을 메주고리에서 갖고자 합니다.

일 시 : 2001년 3월 23일 ~ 31일 - 8박 9일간

지도신부 : 김한기 시몬 신부

음악봉사 : 고영민 안드레아, 손현희 소화데레사 부부

비 용 : \$1,290 (Dubrovnik 1일 순례도 포함됩니다.)

고영민 형제는 원로 가수이신 고복수 씨와 황금심 여사의 차남으로 대중가수 활동 중 성령을 체험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 중이며 현재 서울대교구 성령봉사회의 음악부장으로 있습니다. 손현희 자매는 개신교 신자였으며 MBC 강변 가요제에서 '이름없는 새' 로 대상을 수상한 후 대중가수로 활동 중 고영민 형제와 결혼을 하고 천주교 영세를 받은 후 모든 대중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부부가 오직 복음성가 가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로 : 샬롬, 내 진정 사모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실로암, 주여 이 죄인이
주만 바라볼지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발표.

“하느님을 굳게 믿어라.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1998년 5월 메시지 -

질문 : 온 세상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까요?

대답 : 네

질문 : 어떻게?

대답 : 이 메시지를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질문 :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시죠, 마리아?

대답 :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씩을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병들고 굶주린 이들의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 이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여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만큼 그 마음 안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질문 : 듣기만해도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마리아, 그 충실한 자녀들이란 누구죠?

대답 :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의 인터뷰 에서>

메주고리에 부활절 순례일정

일시 : 2001년 4월 7일부터 16일 (9박 10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비용 : \$1390 - 뉴욕 JFK출발기준 (Dubrovnik 1일 순례도 포함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와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주문량

- (1)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합계 \$55 ()
 (2)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합계 \$110 ()
 (3)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합계 \$270 ()
 (4) 500부 이상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